/ 국민참여재판 중간 결산 /

광주 배심원 수준 높았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이후 28일 현재 전국적으로 16건의 재판이 열렸다. 16건의 재판 모두 배심원 결정이 재판부 판결에 대부분 반영돼 선고됐다.

광주지법 평결 2건 모두 실형 확정

법조계 안팎 '난항' 우려 씻고 '순항'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일부 주요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2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올해 첫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애초 시행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의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국내에서 실시된 16건의 재판 중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형이 확정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이 지역 배심원들의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재판부와 검찰·변호인 측이 생각한 양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 칭얼대는 18개월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 첫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에 대한 일반 재판에서의 양형'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두 번째 참여재판에서도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범 집행유예율이 63.2%에 이르고 합의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보면 배심원들의 결정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하다'고 생각한 셈이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광주지법에 열린 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양형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배심원 결정을 대부분 판결에 반영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사법 눈높이를 법원과 검찰이 적정 수준에서 맞춰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다음달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3건의 국민참여재판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4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법원은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61개 해수욕장 6월 개장

텐트촌 609동 설치

완도 신지 명사십리와 진도 가계 해수욕장이 다음달 2일 전국 최초로 개장하는 등 전남도내 61개 해수욕장이 6월 중에 잇따라 문을 연다.

서남해안에 위치한 전남지역 해수욕장은 햇볕이 따뜻하고 일조량도 풍부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이 높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찍 문을 열게 됐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서는 개장식과 함께 해변골프대회, 모래조각 전시회, 국악공연 등이 함께 열리며 진도 가계 해수욕장에서는 무사고 기원제, 비치발리볼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마련하는 등 피서객 맞이에 분주하다.

또 전남지역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을 위해 씨카약, 바다 래프팅 등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교실 운영, 전국 해변축구 대회, 비치발리볼 대회, 천일염 메고 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인기를 더하고 있는 '사랑의 텐트촌' 609동을 설치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해수욕장에 기업체 하계휴양소를 적극 유치하는 등 여름철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강수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전남의 바닷물은 게르마늄, 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온이 따뜻하고 완만하다"며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일

시군	해수욕장명	개장일
여수	만성리	6월 27일
	방죽포	6월 28일
고흥	남열	6월 7일
보성	율포	6월 20일
장흥	수문	6월 25일
해남	송호	6월 14일
	사구미	7월 12일
무안	홀통	6월 21일
	톱머리	6월 28일
함평	돌머리	7월 4일
영광	가마미	6월 27일
완도	신지 명사십리	6월 2일
	금일 명사십리	6월 28일
진도	가계	6월 2일
	관매	6월 15일
신안	우전	6월 5일
	대광	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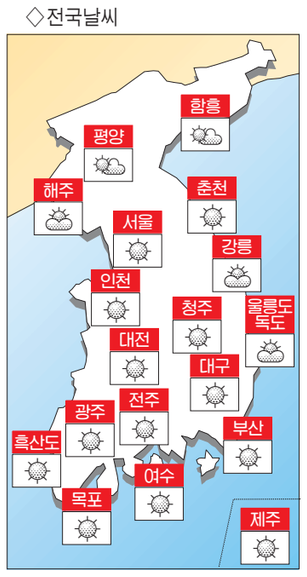
다시 뜨거운 햇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5월 29일 (음 4월 25일) 날씨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18~30℃
목 포	구름 조금	17~25℃
여 수	구름 조금	16~25℃
완 도	구름 조금	16~27℃
구 례	구름 조금	17~30℃
해 남	구름 조금	17~28℃
장 흥	구름 조금	16~28℃
고 흥	구름 조금	14~27℃
순 천	구름 조금	17~29℃
영 광	구름 조금	15~27℃
진 도	구름 조금	18~28℃
전 주	구름 조금	18~28℃
남 원	구름 조금	17~28℃
흑산도	구름 조금	12~1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8:30 21:12 썰물 01:28 14:27
여 수 밀물 03:38 16:28 썰물 10:14 22:22

▲해뜸 05:20 ▲해짐 19:40 ▲달뜸 01:19 ▲달짐 13:2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금)	31(토)	6/1(일)	2(월)	3(화)	4(수)
날 씨						
최저/최고	16/25	13/25	14/27	15/24	15/24	15/25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 첫 신입생 모집

6월 16~23일 원서접수

내년부터 의과대학과 병행해 운영되는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남대는 28일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6월16일부터 2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전형 13명, 일반전형 6명 등 총 19명을 선발하는 이번 수시모집은 출신학과(계열·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와 2008년도 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또 특별전형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광주·전남지역 이외(외국 포함)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전 과정의 평균성적인 85점 이상이거나 상위 30% 이내의 석차에 해당하는 성적우수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1단계에서 학사과정 성적 40%, 공인영어 성적 40%, 서류전형 성적 20%가 반영되며 모집정원의 2배수로 압축된 1단계 합격자에 한해 기본소양과 그룹토의, 개별면접 등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단계 평가점수와 2단계 심층면접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선발하되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성적이 각각 상위 40% 이내여야 한다. 한편, 44명을 모집하는 정시모집은 오는 11월에 실시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천초 '영어센터' 개관

28일 광주시 서구 광천초등학교에 생활영어 배움터인 '영어센터'가 개관해 학생들이 외국인 원어민 교사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 이곳 영어센터는 원어민 교사 3명,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한국인 교사 3명, 시간강사 3명 등 우수 강사진을 갖추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태안 주민들 유해물질 체내 농도 높아

타르피해 전남 주민 체계적 조사 시급

지난해 12월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군 주민과 자원봉사자에게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타르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지역 주민들도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환경부는 충남 태안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중간 분석 결과, 급성 건강영향 호소율과 소변 중 대사물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방제 작업 일수와 원유 피부 노출이 증가할수록 코·목 증상, 피부 자극, 피로, 통증 등 증상호소율이 증가했다.

또 조사대상 주민 중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포함된 사람이 남자는 30.4%, 여자는 23.6%로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보다 남자는 10%, 여자는 4%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고위험군에 포함된 사람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10~20% 더 많았다.

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 주민과 자원봉사 작업자 등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주민의 30.3%는 유해물질인 벤젠의 대사산물인 뮤콘산의 소변 내 농도가 비사고 지역 주민의 상위 75%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